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5월 11일 15시 18분



## 제 탓입니다

2023.03.28 조회수 53 등록자 이주희

바쁜 일상 중에도 조용히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. 시인은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안에 숨어있는 '두 마리의 개', 즉 선입견(☒)과 편견(☒)을 발견하고서 깨닫습니다.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왔을 자신의 죄(?)가 어디 선입견과 편견뿐이었겠습니까?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렬히 반성하며 '제 탓이오, 제 탓이오, 저의 큰 탓이 옵니다'라고 가슴을 치는 시인의 자복(☒☒)이 부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감히 바라는 것입니다.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0328.png (51 hit / 720.7 KB) [미리보기](#)[목록](#)[이전글  
삶의 고비](#)[다음글  
이런 모비명](#)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